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와 기초교양교육의 지향

2009. 12. 02. (수) | 백종현(서울대)

1.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며 사회의 각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연구를 진작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학칙」, 제2조) 가진 서울대학교는 2006년 가을 개교 60주년을 맞아 <겨레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대학교>라는 기치를 세움과 함께 대학의 사명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 3개 항을 공표하였다.

① 서울대학교는 올바른 사고와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서울대학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미래형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 창의적 사고력, 변화에 대한 적응력, 세계적 안목과 시야, ‘세계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그리고 사회봉사에 필요한 실천적 지혜와 리더십을 함양해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지적 역량을 모아 21세기를 이끌어갈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여 학문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한다.

‘학문의 대학’으로서의 서울대학교는 시대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창출의 중심이 되어 학문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해야 한다. 미래의 지식, 기술 사회, 정보화 사회, 개방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융합”의 원리에 근거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해야 한다.

③ 서울대학교는 ‘겨레의 대학’으로서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의 대학’으로서 인류 공존 공영의 정신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

서울대학교는 한국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를 육성하고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세계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겨레의 대학’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한다. 나아가 학문연구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의 대학’으로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인류 사회의 평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창달에 공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러한 사명의 규정은 서울대학교가 1977년 이래 지향해 온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의 이념을 계승하면서 그 사이 가속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류 문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서울대학교는 요컨대 그 교육의 초점을 인류세계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식견을 갖춘 인재 양성에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인재란 특정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및 전체 사회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세계 역사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여 겨레와 인류세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이념은 교육과정을 통해 현실화할 것인바, 그래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7-2025)>은 곧 학부교육은 '우수한 미래형 지도자 양성'에 주안점을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①폭넓은 교양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인접 학문의 발전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유연한 사고를 기르도록 하고, ②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 창의적 사고력,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도록 하며, ③'세계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세계적 안목과 도량을 함양하여, ④실천적 지혜와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며, 대학원교육은 '세계의 학문공동체를 선도해 갈 학자 배출과 직능별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①창의적 지식 창출력과 ②인류문화에 대한 식견, 그리고 ③미래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양교육의 지향

1) 학사교육과정의 문제 상황

서울대학교의 교육이념 또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수많은 논의의 장에서 거의 예외 없이 도달한 첫 번째 합의점은, 앞서 보았듯이, 학부생들이 장차 우리나라와 인류세계의 지도자로서 품격을 갖추기 위해 우선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접 학문의 발전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서울대학교의 실체는 이에 상응하는가?

최근 한국 출신으로 미국 유수대학의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어떤 이는 "한국 대학들의 졸업생이 가까운 장래에 노벨상을 수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서 "한국의 기초학문 대학들은 학생들을 너무 일찍 학과(부)로 소속시킴으로써 학생들이 '폭넓은 교양'과 시야를 갖추는 것을 막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진단은 서울대학교에도 타당할 것으로 본다. 서울대학교의 학사과정에는 세계의 대학들에 있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학과(부)로 설치되어 있고, 학과(부) 소속 교수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 자신조차도) 대부분 — 학생들의 학과(부) 소속감 결여, 동기들과의 유대감 희박, 전공이수학점의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 학생들의 계열별 모집, 계열별 공동교육조차 한사코 반대하여 기회만 있으면 학과(부) 단위의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설치의 합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학제간의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학문융합이 새로운 이론 창출의 좋은 방안이라고 웅변한다. 이러한 실재의 성향과 관념적 웅변은 그러나 상충하는 것이다. 어떤 학문 분야에서 이미 최고 수준에 이르러 이론을 창출할 정도에 이른 학자가 학제간의 연구까지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가 타 학문분야의 기초이론 정도는 섭렵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교양은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이수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현대의 학문 수준에서는 아무리 낮춰 잡아도 대학 2-4년 정도의 기초연구를 통해서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일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까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러하기에 현대의 각 학문에 기초가 되는 것, 예컨대 언어(한국어/외국어)와 수학과 함께 현대 학문의 근간 분야의 기초이론까지는 습득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서울대학교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우선 학과(부)로 소속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그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세계 유수 대학의 실정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로써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는 충분히 잘 표현된 것이며, 학사과정의 기초교양교육과정도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 지향해야 할 바도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하겠다.

서울대학교 안에도 '학부'라는 명칭을 가진 교육조직이 없지 않으나 많은 경우, 사실은 학문의 융합의 정도에 따라서 '학과'와 구별된다기보다는 분과 학문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학과'나 다를 바 없으며 사회적 수요가 많은 것에 부응하여 소속 교수와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이 배정된 '큰 학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 '학부'의 단위는 '어문학부', '사회과학부', '이학부' 정도는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하며, 굳이 더 나누자면 '어문학부 1, 2, 3', '역사학부', '철학부', '사회과학부 1, 2, 3', '이학부 1, 2, 3, 4' 정도의 분할까지는 고려할 수 있겠다. — 그래서 현재 서울대학교는 사실상 학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접학문을 접할 기회는 일찍부터 제한된다. 사람은 대개 '전공'이 정해지면 그에 주력하기 마련이고, 인접학문에 대한 관심은 기껏해야 시나브로 생겨날 뿐이다. 그러므로 향후 인접학문과의 관련성이 절실한 기초학문들의 경우에는 그 전공자가 가급적이면 늦게 '전공'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문의 융합은 학문의 미분화가 아니라, 복수 학문 분야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학문 단위를 지칭하는 '학과'의 설치와 존속은 학문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더 필요하고, 아마도 더욱 세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원 수준에서의 일이다.

학사과정은 학과(부)의 성격에 따라 학사과정을 최종 교육과정으로 생각하는 '학사 완결형'과 대학원에서의 심화연구를 전제로 하는 '대학원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대학원 수준에서나 전문가 배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학문 분야는 — 대개는 현재의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의 영역이 이에 속할 것인데 — '대학원 연계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공통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들은 학과 대신 중단위의 '학부'를 교육단위로 하여, 학사과정 중 최소 2년은 기초교양교육과 함께 공통의 전공기초교육을 행하고, 연후에 전공을 선택하게 하되, 그것도 가급적 복수/부전공을 유도하고, 세분된 전공은 대학원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사과정에서는 '전공' 몇 학점을 더 이수하게 하는 것보다는 대학원에서 전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넓고 튼튼하게 닦도록 하는 것이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 창의적 사고력, 변화에 대한 적응력, 세계적 안목과 시야, '세계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그리고 사회봉사에 필요한 실천적 지혜와 리더십을 함양"하는 길인 것이다.

이것은 수십 년째 논의만 반복되고 교육과정 연구보고서에서만 반복해서 제안되고 있는 명실상부하는 '학부제' 또는 '학부대학'을 실행함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것인데, 논의는 거듭되면서도 시행되지 못하는 사정이 어떤 계기에서 갑자기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라도 마련하여 그 한도 내에서나마 기초교양교육을 행하는 방도밖에는 없겠다.

2) 기초교양교육의 의의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성격에 따라서 응당 정해지는 것이다. 대체 '대학(大學)'이 무엇인가? 그것은 본디 '대인의 학문[大人之學]'을 말한다. 대인(大人)은 곧 '군자(君子)'를 뜻하고, 이는 곧 '치자(治者)'를 일컫는 것이니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사회지도자'이겠다. 또한 '학문(學問)'이란 '배움으로써 덕을 모으고, 물음으로써 그것을 변별하는 것'(學以聚之[德] 問以辨之: 『周易』, 乾爲天)을 말한다. 여기서 '덕(德)'은 도덕적 실천의 큰 힘과 아울러 이론적 지식의 큰 힘 또한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대학 공부의 첫 단계가 '천성의 밝은 덕을 밝힘[明明德]'(『大學』, 經文)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개 '학문(scientia, Wissenschaft)'을 '지식의 체계' 또는 '체계적 지식'이라고 규정하거나 이와 아주 좁은 의미의 학문을 일컫는 것이겠다. 그러니까 대학은 '대인' 곧 도덕적 실천력과 체계적 지식을 겸비한 사회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사회지도자란 한낱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인이나 기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도 '군자는 그릇이 아님'(君子不器: 『論語』, 爲政)을 알았다. 사회지도자는 한낱 일의 도구가 아니라 일을 주재하는 자이므로, 전문가이되 단지 전문가이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특정 분야에 매이지 않은 전체적인 조망능력을 가져야 한다.

대학의 이상이 그러하고, '큰 사람[大人]'의 상이 그러한 것이라면, 그를 위한 교육과정은 응당 그것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상이 '도덕적 실천력을 갖추자!',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여 체계를 세우자!'고 외친다 해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 만큼, 대학은 그에 걸맞은 제도와 시설을 갖추

고, 엄밀하게 운용해 나가야 한다.

사람의 인품이나 학덕의 형성은 어느 면에서는 대나무의 생장 모습과 유사하다. 대나무의 굵기는 죽순 성장기에 거의 정해지며 길어도 2년 이내에 사실상 다 자란다. 이후에는 해를 거듭하면서 단단해질 뿐이다. 학문의 길에 나서는 학업의 초기에 충분한 교양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이에 유추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을 '큰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공'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쳐서 가두기보다는, 먼저 터를 크게 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 터 잡기가 끝난 후에 다져나가는 편이 효과적이고 이음새가 없어서 좋다. 물론 여건이 불가피할 때는 다져가면서 터를 넓혀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방법은 말처럼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의 현황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 '터 잡기'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초교양교육이다.

기초교육은 모든 전공교육의 토대가 되는 언어(논리)와 수학 교육이 그 중심이 된다. 그것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수량화를 통하여 일반화하는 수단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전문적 학문의 공통의 기반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성적 동물(ζῷον λόγον ἔχον)'로 규정된다. 여기서 이성(logos, 道)이란 무엇인가? '논리'의 능력으로서 이성은 원초적으로는 말하고, 셈하는 능력으로 드러난다.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셈하는 것이 '도(道)'를 밟는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언어와 수학 공부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아주 생략해서 말하면, 누가 얼마나 '인간다운'가는 그가 얼마만큼의 언어와 수학 능력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다. 이미 초중등교육과정을 통해 부단히 학습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인간적인 기초능력을 더욱 함양하기 위한 것이 대학의 기초교과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써 인간이 충분히 형성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언어와 수학 능력의 함양으로 인간은 기본을 갖추게 되는 것뿐이다.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우려면 '참'의 가치를 지향하여 형성(Bildung)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성을 일컬어 '교양(Bildung)'이라 한다. 교양을 갖추었다 함은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함, 곧 참인 앎[眞], 참된 행위[善], 참한 정감[美]를 추구하는 '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참 삶이 인간의 진정한 인간다운 삶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일'을 교양교육은 지향한다.

이러한 교양교육은 자유롭고,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교양교육은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자유롭다' 함은 의식주 등 세상살이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은 생업의 수단을 획득하는 기술 교육도 지양하고, 특정한 종교사상이나 정치이념, 윤리의식을 고취하려는 이른바 '정신 교육'도 지양한다. 그렇기에 자유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의 교과목은 다양한 고전 독해를 포함한 순수학문(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나 순수 예술(음악, 미술, 연극) 분야들로 구성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것들은 인간의 문화유산의 향취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한창 왕성한 정신의 성숙기에 있는 이들의 미감과 상상력 함양에 기여한다. 이러한 자유교육은 라틴어 낱말 '교육(educatio)'의 원초적 의미, 곧 학생의 소질을 '밖으로 끌어냄'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하겠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으로서의 소질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가능성'이므로, 교육은 마땅히 피교육자의 잠재적 능력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양교과는 학생들에게 관찰, 조사, 반성, 토론 거리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여건을 조성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석이다.

교양교육은 또한 '일반교육'이어야 하는데, 이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교양교육은 학생의 특정한 직업을 위한 소질 개발이나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기대되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교양의 증진을 지향한다. 그러한 만큼 교양교육은 학생의 균형 잡힌 인품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교과목이 편성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 생활에서 인간은 이미 직업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직업은 점점 더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이에 부응하여 직업 획득을 위주로 한 교육만을 받게 될 때, 그의 특정한 능력은 극대화할지 모르겠으나, 또 다른 잠재 능력들은 사장되고, 성품 또한 편벽될 우려가 크다. 사회구성원들의 원만한 인품의 결여는 당사자의 고립은 물론 전체사회의 파편화를 불러와 '인간사회'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특정한 직업 수행에 매몰되어 단지 부품으로 전락할 때, 과연 '누가 사회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교양교육은 장차 사회지도자가 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고루 개발하고, 인간 사회 전반을 조망할 식견을 갖추고, 자연과 원활히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품위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 형성되게 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연찬하는 주요 대상을 '체계적 지식'으로 좁혀서 생각한다 해도, 새로운 지식은 충분한 교양을 바탕으로 해서만 창달될 수 있다. 이론적 학문은 '지식의 체계화'에 의거한다. 날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것만으로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체계화가 관건이다. 그런데 지식들을 체계화할 때는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끈, 곧 통일적 원리가 필요하다. 하나하나 지식들을 주워 모으는 데도 적지 않은 탐구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모아진 지식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관통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일은 인내 이상의 창의력을 요한다. 이 '창의'는 비상한 상상력과 통합적 사고능력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학문 융합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폭 넓은 교양교육은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전히 정신적 성숙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피교육자로 하는 기초교양교육의 목표 내지 의의를 이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겠다.

첫째, '이성적 동물'인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성 능력'인 언어와 수학의 능력을 배양한다.

둘째, 고전 독해를 통해 인류의 역사적·정신문화적 자산을 공유하게 하여 어느 분야의 전문인이 되든 지간에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양식(良識)을 갖게 한다.

셋째, 다양한 인간사의 맥락을 파악하게 하여 세상사에 대한 식견[事理分別力]을 갖추도록 한다.

넷째, 자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하여 자연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하게 한다.

다섯째, 사실에 대한 다각도의 관찰 능력, 심미적 감상 능력, 미답(未踏)의 것에 상상력을 길러 창의력을 함양한다.

여섯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갖추어야 할 도덕감정, 도덕적 실천 능력 즉 덕성(德性)을 배양한다.

일곱째, 균형 잡힌 인성을 길러 자연과 조화하고 사회와 화합하면서도, 자아 개발의 즐거움을 얻게 하여 사회 속에서 보람 있는 개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3) 기초교육원의 설치와 기초교양교과목의 합리적 운영

서울대학교는 일찍이 기초교양교육의 이러한 의의를 인지하였으나 종합대학교로 발족할 당시부터 연

합대학의 성격이 강했던 데다가 전공교육을 우선시하는 학과들의 장벽이 여전히 견고하여, 일반교육을 지향하는 교양교육과정의 제도 구축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기초교양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된 현재의 <기초교육원>에 이르기까지 기구의 변천도 자못 무쌍하였다.

서울대학교 내에 기초교양교육의 전담부서로는 1956년 당시 문리과대학 안에 설치된 <교양과>가 효시라 하겠다. 이것이 1957년에는 <교양과정부>로 개칭되어 막 기틀을 잡아가려 했으나 1959년 법제화의 실패로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비로소 1967년 「국립학교설치령 중 개정의 건」(대통령령 제 3303호, 1967. 12. 14)에 의해 1968년 <교양과정부>가 정식 발족하였고, 1974년에 이르러서는 교수 64명(정교수 4, 부교수 16, 조교수 37, 전임강사 7), 조교 11명, 시간강사 33명, 임시조교 4명, 사무직원 13명, 고용원 8명 등 교직원 총 133명을 가짐으로써 서울대학교 내 8번째 큰 규모로 발전하였었다. 그러나 이 <교양과정부>는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의 일환으로 다시금 폐지되고 말았다.

<교양과정부> 폐지와 함께 1975학년도부터 소속 교수들은 3개 “기본학문대학”의 학과로 분산 배정되었고, 교양교육의 운영책임은 교무처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이 애초에 기초교양교육을 소홀히 하려 한 것은 결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초교양교육의 난맥과 방치를 초래하였다. 이는 학과로 전속된 당초의 <교양과정부> 소속 교수들마저도 ‘전공교육’만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기고, 세월이 가면서 교수 퇴임과 신규 임용 과정에서 교양교과목 전담 교수의 자취는 사라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교무처는 한국사회 최대의 과제인 ‘대입시 업무’와 학과 교수들의 주관심사인 ‘전공교육’ 현안에 업무 비중이 쏠린 탓에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난 귀결이었다. 학사과정 졸업생들이 이수학점 중 거의 3분의 1을 교양교과목에서 취득하는 상황에서 교양교과목의 체계적 운영이 불가피해지자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긴 논의를 거쳐 교양교육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 원칙의 심의기구로 1997년 <교양교육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것이 2001년에는 <기초교육위원회>로 격상 발전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원칙 심의만으로는 실효가 크지 않아 2002년에는 ‘위원회’와는 별도로 <기초교육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기초교육원>은 2009년 9월 현재 겸무인 원장, 부원장과 겸직인 주임교수 11명, 겸무교수 2명, 초빙교수 2명, 연구교수 2명, 전임대우강의교수(시간강사) 58명(정원 63명), 연구원 2명, 행정담당 사무직원 8명, 행정조교 2명, 리더십센터장과 연구원 2명, 기타 등 100여명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대부분 학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교양교과목의 담당자(약 전임교수 380명/시간강사 550명)를 제외하고도 외견상은 1970년 초반의 <교양과정부>과 비슷한 규모를 되찾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자체 소속 전임교수가 1명도 없고, 교육기구도 아니고 행정기구도 아닌 ‘지원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기초교육원>이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기초교양교육을 주관하는 데는 이미 그 한계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제 지난 7년간의 <기초교육원>과 기초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더 늦기 전에 기초교양교과목들의 체계적 통일을 기하고, 기초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이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시점이다. 그리고 그 개선의 첫걸음은 <기초교육원>의 교육기관으로의 전환과 함께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을 35년 전으로 되돌려 옛적 <교양과정부>를 복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니, 1975년 <교양과정부>의 해체 당시에 안고 있던 문제 상황을 다시 빚지 않도록 교양교과목의 주 공급자인 기초 3대학 및 그 학과(부)들과 수요자인 여타 모든 대학의 관계자들이 ‘서울대학교 교육목표의 실현’이라는 대의 아래 지혜를 모을 때에야 실현 가능한 합당한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이든 기관이든 문화사회환경이 변화를 요구할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쇠락하기 마련이다. 한창 번성하던 국가나 회사가 변화의 시기를 읽지 못하여 쇠망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대학 역시 항상 인류 문화의 흐름의 방향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대학교가 같은 체제로 그간에 장족의 발전을 했으

니, 앞으로도 그러할까? — 서울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비약적 발전을 교육에서도 이루고자 할 때 현재의 교육과정과 교육교직이 과연 합당한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